

해양지명 조사

<남해 중부(연안), 황해 및 제주도 부근>

본 내용은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7. 11



국립해양조사원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원과 계약체결한 「해양지명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1.

사 단 법 인 대한지리학회

회 장 이 기 석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이기석 (전 서울대 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참여연구원 : 김동수 (한국해양개발(주) 회장)
(가나다순) 박수철 (충남대 교수)
성효현 (이화여대 교수)
윤옥경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상태 (국제문화대 석좌교수)

- 보조연구원 : 김효정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 보조원 : 이원영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은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과정)
오현수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학사과정)
정다현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학사과정)

- 자문 위원 : 박병익 (서울대 교수)
(가나다순) 석봉출 (한국해양 연구원, 연구위원)
성백식 (세계해양기술 회장)
이상엽 (한국해양개발(주) 이사)
이형석 (한국 땅이름 협회 회장)
주성재 (경희대 교수)
한현철 (한국지질 자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양지명을 조사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행되었다. 2005년에 동해 중부 해역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06년에는 동해 남부, 남해 동부 및 제주도 남부 해역, 2007년인 올해는 남해 중부(연안), 황해 및 제주도 부근 해양지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표준화된 해양지명의 제정·고시 및 국내 통용을 위한 해상지형(바다, 해협, 만, 수도 등)과 해저지형(초, 해저구릉, 해저계곡 등)의 자료 조사 및 지명 제정을 위한 심의제안서 작성,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개정(안) 제시, 우리바다 국가표준지명 관리방안 마련과 우리바다 지명사전 구축 및 해저지명의 국제기구(SCUFN) 등록 지원 등에 목적이 있다.

현지 조사와 해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지역 내에는 해협, 수도, 해, 만, 해만, 포, 초, 암(여·서), 해저구릉, 해저계곡, 사퇴지형구의 해양지명이 존재하였으며 총 개수는 291개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수로 12개(해협 1개, 수도 11개), 만 42개(해만 1개, 만 4개, 포 37개), 암 154개, 초 76개, 해저구릉 5개, 사퇴지형구 1개, 해저계곡 1개가 확인되었다. 조사한 해양지명 중 심의 제안 대상이 되는 해양 지명은 291개다.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개정(안)에서는 속성지명에 대하여 형태적인 설명뿐 아니라 성인적인 설명이 보충되었고, SCUFN과 ACUF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속성지명이 추가되었다. 특히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이 되기 위하여 시각적인 도해와 3차원 모델 그림이 활용되었다. 추후 우리나라가 해양지명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양지명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로 뒷받침되는 편람 구축이 절실하다.

해양표준지명 관리 방안으로 해양지명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해양지명관리시스템은 신규지명 등록 및 갱신 프로그램과 해양지명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해양지명 등록, 해양지명 관리, 검색, 기준정보 관리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추후 해양표준지명 관리 시스템은 공간자료와 연계하고 인터넷을 통해 입력, 질의, 검색, 분석 및 출력이 가능한 인터넷 GIS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미 GEBCO도 인터넷 GIS를 활용한 해양지명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동안 조사된 지명 DB와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을 기초로 해양지명 DB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바다 지명사전을 구축하였다. 해양지명 사전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필수 항목(고시지명, 지명종류, 고시일자, 대표위치)과 선택 항목(영문지명, 대표수심, 기복, 형태, 경사도, 최저수심, 최고수심, 지형특성, 명칭유래, 별칭, 도해 및 지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해양지명 국제기구(SCUFN)에 해저지명을 등록하기 위한 전략 및 국제 활동을 기초로 하여, 2007년 7월 제 20차 SCUFN회의에서 10개의 해저지명이 국제표준으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해저지명은 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우산해저절벽,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김인우해산, 안용복해산, 이규원해저용기부와 후포퇴이다. 해저지명의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양지명 조사 영역의 확대, 해양지명 조사 지원 및 국제적 등록 추진을 위한 기반 확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국제 표준 선도, Outreach Service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남·황해의 경계선을 규정할 필요성에 따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해양경계 획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남·황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정치지리학적 고찰, 지역주민의 정서, 법적·제도적 요인, IHO 등 국제기구의 추이, 기관간의 협의 및 통일 대비를 위한 북한의 의중 등 모든 요소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등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해양지명을 제정·고시하는 하는 데 있어 본 조사·연구가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나, 해양조사원 담당 부서의 자체 조사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해저지명에 대한 조사·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해저지형도를 만들어 바다 속 자원의 분포 및 지형 특색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저지형에 대하여 지명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저지형 및 해양지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해양지명을 제정·고시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양지명을 조사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양지명 조사는 2005년 동해중부 해역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동해 남부, 남해 동부 및 제주도 남부 해역을, 2007년인 올해는 남해 중부(연안), 황해 및 제주도 부근 해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나라 남해 중부(연안), 황해 및 제주도 남서부 해역에서 해저지형 분석과 토속지명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하고, 새로 발굴된 해양지형에 대하여 표준화된 해양지명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둘째, 국제 표준에 입각한 체계적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해양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지명 관리방안 제시 및 우리바다 지명사전을 구축한다.

넷째, 해양지명 국제기구(SCUFN) 등록 전략 및 국제 활동 내용을 기술한다.

다섯째, 해저지명의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해양 경계에 대하여 정치지리학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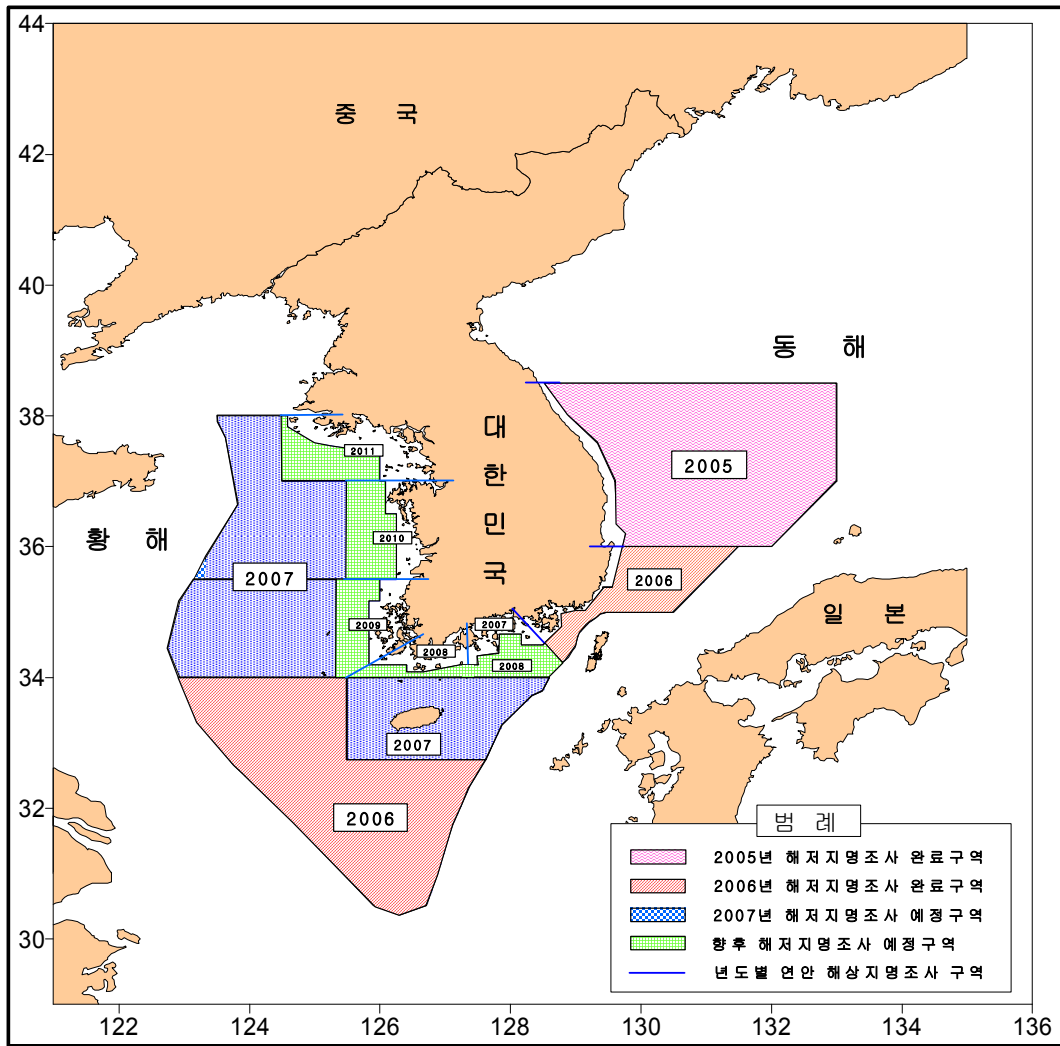
본 연구는 크게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에 대한 조사로 나누어진다. 먼저 해상지명에 대한 조사는 지형도 및 해도를 분석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토착지명을 조사하였다.

연구 지역 내에 존재하는 해양지명의 종류 중 해협, 수도, 해, 포, 만, 해만, 여서·

암은 해상지명에 속하고, 초는 해저지명에 속한다.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초를 여·서·암·탄·근과 함께 조사하였고, 여·서·암·탄·근과 초에 관한 토착지명은 지역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토착지명 조사 시 여·서·암·탄·근이 해상지형인 간출암(Rock)과 해저지형인 초(Reef)에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렇게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지명을 토대로 하여 심의제안서를 작성하였다.

해저지명에 대한 조사는 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한 3D Map과 해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3D Map과 해도를 통해 해저지형을 조사·확인하고 이후 지형적 특성과 국가적·역사적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지명 후보지를 선정한 후, 최종 선정된 지형에 대하여 지명부여를 제안하였다. 지형적 특성은 주로 형태적 속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인적 속성은 2차적 기준으로 이용되었다. 연구지역이 이웃 국가와의 경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지명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국가적·역사적 필요성을 지명부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조사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그림 1-1).

지명 부여할 해저지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들에게 부여할 예비명칭을 선정하였다. 예비명칭은 문헌조사를 통해 지리적·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한국해양지명 표준 편람에서 제시한 지명부여 원칙 뿐 아니라 SCUFN 지명부여원칙을 기초로 하여 국가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명칭으로 제시하였다.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개정과 국가표준지명 관리방안은 기존에 구축된 지명관리 시스템의 사례분석과 국제기구의 지명관리 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해저지명의 국제기구 등록과 국제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은 SCUFN의 참여와 해저지명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통해 수립하였다. 해양경계에 대한 분석은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림 3-1] 연구지역의 범위

II . 해양지명조사

1. 현장조사 방법 및 기간

연구지역 내에서 지명제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크게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에 대한 조사로 나누어진다. 먼저, 해상지명에 대한 조사는 지형도 및 해도를 분석한 후 토착지명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지역 내에 존재하는 해양지명 중 해협, 수도, 해, 포, 만, 해만, 여·서·암은 해상지명에 속하고, 초는 해저지명에 속한다.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초는 여·서·암·탄·근과 함께 조사하였다. 해저지명에 대한 조사는 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한 3D Map과 해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지역에 존재하는 해상지명은 해협, 수도, 만으로, 지명 확인 및 명확한 범위를 조사하였고, 암에 해당하는 간출암과 간조 시에도 물 위로 노출되지 않는 초의 토착지명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지조사 방법은 현장 조사와 지역주민에 대한 면담 조사로 진행되었다. 1차 현지조사는 여수, 2차 현지조사는 광양만과 여자만, 3차 현지조사는 고흥반도, 4차 현지조사는 제주도 인근해역으로, 2007년 5월에서 10월 사이 총 4회, 약 1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기간과 조사 지역,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조사기간 : 2007년 5월 18일~20일

조사지역 : 여수 인근해역

조사내용 : 각 지역 전문가, 어촌계장과 주민 면담을 통해 여수 인근 해역의 해협, 수도, 만의 지명 확인 및 명확한 범위 조사, 간출암과 초에 대한 지명 조사

<2차 현장조사>

조사기간 : 2007년 6월 16일~18일

조사지역 : 광양만과 여자만 일대 해안지역

조사내용 : 각 지역 어촌계장과 주민 면담을 통해 광양만과 해수 인근 해역의 해협,

수로, 만의 지명 확인 및 명확한 범위 조사, 간출암과 초에 대한 지명 조사

<3차 현장조사>

조사기간 : 2007년 7월 23일~25일

조사지역 : 고흥반도 일대

조사내용 : 각 지역 어촌계장과 주민 면담을 통해 고흥반도 일대의 수로, 만의 지명 확인 및 명확한 범위 조사, 간출암과 초에 대한 지명 조사

<4차 현장조사>

조사기간 : 2007년 10월 18일~20일

조사지역 : 제주도

조사내용 : 각 지역 어촌계장과 주민(해녀, 스킨스쿠버) 면담을 통해 제주도 인근해역의 간출암과 초에 대한 지명 조사

2. 해양지명(해상 및 해저지명) 조사로 새로 발굴된 해양 지명

현지조사와 지도 분석을 통해 발굴된 해양지명은 총 291개이다. 조사 결과, 수로 12개(해협 1개, 수도 11개), 만 42개(해만 1개, 만 4개, 포 37개), 암 153개, 초 77개가 조사되었다. 황해 해양지명은 해도와 3D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해저구릉 5개, 사퇴지형구 1개, 해저계곡 1개가 조사되었다. 다음은 해양지명 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해양지명에 대한 내용이다(표 2-1).

표 2-1 해양지명(해상지명 및 해양지명) 조사 결과

구분	해양지명		현지조사				3D 맵, 해도분석	합계
			1차	2차	3차	4차		
해상지명	수로	해협	1	-	-	-	-	1
		수도	6	5	-	-	-	11
	만	해만	-	1	-	-	-	1
		만포	-	4	-	-	-	4
	암	암	24	9	4	-	-	37
암	암	27	38	38	50	-	153	
해저지명	초		9	8	1	59	-	77
	해저구릉		-	-	-	-	5	5
	사퇴지형구		-	-	-	-	1	1
	해저계곡		-	-	-	-	1	1
총계			68	67	46	113	7	291

1) 해상지명

(1) 해협

해협은 두 개의 큰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이며, 수도보다는 규모가 크다. 연구 지역에 있는 해협은 여수시에 있는 여수해협으로, 여수해협의 명확한 범위와 지명 변경의 필요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다음은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된 여수해협의 범위이다(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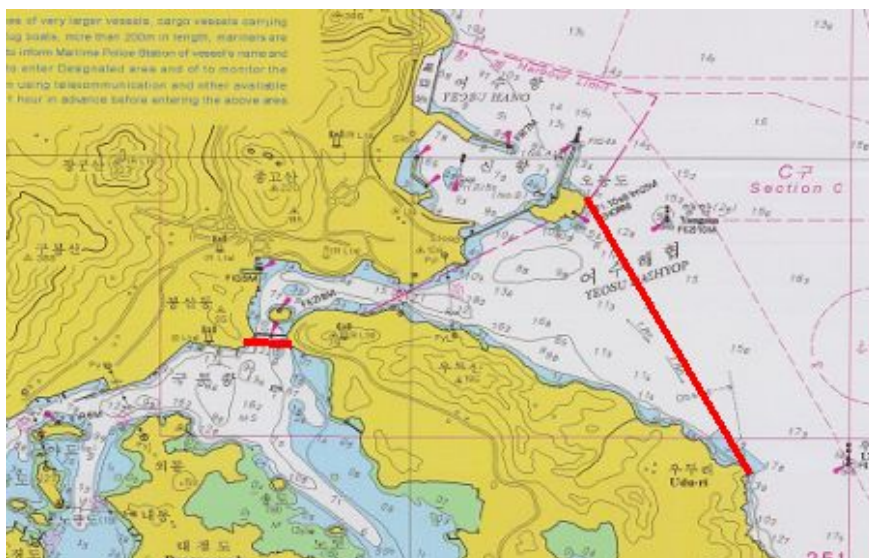


그림 2-4 여수해협의 범위

(2) 수도

수도는 항해가 가능한 수심의 수역으로, 해협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원활한 항해를 위해 인공적으로 준설하기도 한다. 연구지역에 있는 수도는 모두 11개로 수도의 명확한 범위와 지명 변경의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다음은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된 수도의 지명 목록이다(표 2-2).

표 2-2 연구지역에서 조사된 수도

지명	행정구역	명칭유래
공정수도	여수시	있음
금오수도	여수시	있음
묘도수도	여수시	있음
반성수도	여수시	없음
백야수도	여수시	있음
서수도	여수시	있음
신강수도	여수시	없음
월호수도	여수시	있음
제리수도	여수시	있음
조발수도	여수시	있음
횡간수도	여수시	있음

(3) 해만

해만은 비교적 넓은 바다 부분이 육지 쪽으로 깊이 들어온 지역이다. 바다 쪽으로는 해협을 통해 외양과 연결되며 해(sea)보다는 작고, 만(bay)보다는 크다. 연구지역에 있는 해만은 여수해만으로, 여수해만의 명확한 범위와 지명 변경의 필요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다음은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된 여수해만의 범위이다(그림 2-5).



그림 2-5 여수해만의 범위

(4) 만

만은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굽고, 바다가 육지 쪽으로 파고든 지형이 해안의 단순한 굴곡을 넘어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게 육지 쪽으로 둘러싸인 수역이다. 일반적으로 해만(gulf)보다는 작으며,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연결한 선을 직경으로 하는 반원의 면적보다 좁은 경우는 만으로 보지 않는다. 연구지역에 있는 만은 모두 4개로, 만의 명확한 범위와 지명 변경의 필요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다음은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된 만의 지명 목록이다(표 2-3).

표 2-3 연구지역에서 조사된 만

지명	행정구역	명칭유래
가막만	여수시	있음
광양만	여수시, 광양시, 하동군	있음
여자만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있음
장수만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있음

(5) 포

포는 담수나 해수 수역에 있는 비교적 좁은 후미(後尾)로, 교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작은 수로나 운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강의 작은 지류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인다. 연구지역에 있는 포는 모두 37개로 포의 명확한 범위와 지명 변경의 필요가 있는지 조사 해보았다. 다음은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된 포의 지명 목록이다(표 2-4).

표 2-4 연구지역에서 조사된 포

지명	행정구역	명칭유래
계동포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있음
굴구지포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있음
기포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있음
나진리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있음
달천포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있음
덕포	여수시 남면 연도리	있음
덕흥포	고흥군 동일면	있음
동포	고흥군 동일면	있음
두룽포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없음
마상개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있음
막포	여수시 남면 심장리	있음
밭개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있음
방죽포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있음
백금포	여수시 남면 안도리	없음
백포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있음
벌가포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있음
서촌개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있음
석개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없음
소우실포	여수시 남면 심장리	있음
심포	여수시 남면 심장리	있음
안도포	여수시 남면 안도리	있음
안정포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있음
역포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없음
연도포	여수시 남면 연도리	있음
염포만	고흥군 동일면	있음

용주리포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있음
우실포	여수시 남면 우학리	있음
원포개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있음
이목포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있음
이야포	여수시 남면 안도리	없음
임포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있음
작은머리개	여수시 남면 우학리	있음
좁새만	고흥군 동일면	있음
직포	여수시 남면 두모리	있음
집앞개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있음
초포	여수시 남면 두모리	있음

(6) 암

우리나라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에서는 IHO-IOC의 견해를 수용하여 여·서·탄을 모두 암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암은 ‘만조시 바닷물에 잠기는 고립된 형태의 바위 또는 하나의 커다란 돌로서, 항해에 위험 요소가 되는 바위’로 정의하고 있어 초와는 구별된다. 해양지명 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암의 지명은 모두 153개이며, 다음은 현지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암의 지명이다(표 2-5).

표 2-5 현지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암

지명	행정구역	특성 (간출높이 m)	명칭유래	지명중복여부
가른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3	없음	
조강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5	없음	
검둥여작은여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2.2	있음	
검둥여큰여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2.7	있음	
맷돌여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1.4/4.0	있음	
삐약섬여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4.4	있음	
삼거리여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3.8	있음	
소여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1.3	없음	

진지어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0.6	있음	
송어바위	고흥군 과역면 연등리	3.6	없음	
시린여	고흥군 과역면 연등리	3.8	있음	
연목여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2.7	있음	
지난여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2.3	있음	
부근여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2.5	없음	
바닥여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2.8	있음	중복
큰여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2.3	있음	
형제도엿등여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2.2	있음	
땅끝여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2.6	있음	
상용여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4.1	있음	
중용여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3.9	있음	
하용여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3.8	있음	
가릿여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1.6	있음	
고흥삼여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1.7	있음	
순천삼여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2.1	있음	
시릿여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2.4	있음	
흥양삼여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1.9	있음	
한여	고흥군 대서면 송림리	1.0	있음	
세여	고흥군 도덕면 가화리	2.3	있음	
오마숨은여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	2.3	있음	
은전여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	2.3	있음	
물동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0.5	있음	중복
숨은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7	있음	중복
옆등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2	있음	
옆성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6	있음	
코여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3.3	있음	
장애여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2.1	있음	
한여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3.1	있음	중복
만여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1.8	없음	

산어	고흥군 도화면	2.7	없음	
중어	고흥군 도화면	2.9	있음	
내린어	고흥군 동일면	3.0	있음	
외내린어	고흥군 동일면	?	있음	
개걸	고흥군 두원면 대전리	3.8	있음	
부삼어	고흥군 두원면 대전리	1.7	없음	
아침어	고흥군 두원면 대전리	1.7	있음	
꽃등어	고흥군 송도 성수도 사이	2.3	있음	
속어	고흥군	3.9	있음	중복
수박어	고흥군	2.7	있음	
숨은어	고흥군	0.6	없음	중복
작은어	고흥군	2.4	있음	
큰어	고흥군	3.9	있음	
검등어	광양군 도화면 구암리	2.8	없음	
사천어	광양군 도화면 구암리	2.3	없음	
속어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3.5	있음	중복
큰어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3.6	있음	
도롱이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2	있음	
동한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1	있음	
서앞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0.9	있음	
송곳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1	있음	
앞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0.2	있음	
약끈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0.6	있음	
자장코지막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2.7	있음	
젓재기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0.2	있음	
중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0.7	있음	
중한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2	있음	
춘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0.6	없음	
고지물처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0.6	있음	
꺼끄리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	있음	

걸거리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0.3	있음	
굴묵어귀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0/2.4	없음	
너벽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3	있음	
넙적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	있음	
숨은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6	있음	중복
각신어	여수시 경호동	3.2	있음	
고당어	여수시 남면 두라리	0.3	있음	
작은고당어	여수시 남면 두라리	0.1	없음	
남덕이어	여수시 남면 심장리	2.9	있음	
막개어	여수시 남면 심장리	해도상에 표시안됨	있음	
숨서어	여수시 남면 안도리	3.1	없음	
이삼서어	여수시 남면 안도리	2.9	없음	
고래어	여수시 남면 연도리	2.8	없음	
산태바위	여수시 남면 연도리	3.2	없음	
닷어	여수시 남면 우학리	2.4	있음	
검등어	여수시 남면 유송리	2.0	있음	
암석개어	여수시 남면 유송리	0.9	있음	
통시어	여수시 남면 유송리	해도상에 표시안됨	있음	
פות어	여수시 남면 유송리	2.1	있음	
가마바위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2.9	있음	
정조덕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0.6	있음	
산단어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6	없음	
밤섬어	여수시 돌산읍 올림리	2.7	있음	
중어	여수시 만흥동	0.5	없음	
아랫어	여수시 묘도동	0.1	있음	
윗어	여수시 묘도동	0.1	없음	
거북어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3.7	있음	
줄어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2.2/3.5	있음	
해섬어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5	있음	
삼북어	여수시 소라면 여자리	2.8	있음	

소어	여수시 소라면 여자리	0.5	있음	
순섬어	여수시 소라면 여자리	1.9	있음	
작은삿어	여수시 소라면 여자리	1.4	있음	
큰삿어	여수시 소라면 여자리	3.6	있음	
화랑섬어	여수시 소라면 여자리	3.6	없음	
감은어	여수시 소호동	2.1	있음	
애고만어	여수시 소호동	2.0	있음	
먹어	여수시 수정동	해도상에 표시안됨	없음	
새섬어	여수시 신월동	2.1	있음	
섬목섬어	여수시 신월동	2.3	있음	
숨은덕암	여수시 신월동	0.7/1.4	있음	
가물어	여수시 적량동	2.7/3.3	없음	
동어	여수시 적량동	0.9	없음	
물동어	여수시 적량동	2.4	없음	중복
죽도어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0.6	있음	
매물섬어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0.6	있음	
부옥뢰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2.6	없음	
살피섬어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0.6	있음	
속어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2.6	있음	중복
역금어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2.6	없음	
요어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6	없음	
칠어	여수시 화정면 상화리	1.1/2.3	있음	
삼어	여수시 화정면 장수리	2.8	있음	
죽방어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3.6	있음	
바닥어	여수시 신덕동	1.3	없음	중복
강생이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0.7/1.4	있음	
말동어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0.4	있음	
광쟁이텃어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0	있음	
남당큰어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0.9	있음	
등어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0.1	있음	

말제어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0.4	있음	
셋어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0.9	있음	
어랭이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0.3	있음	
작은어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0.4	있음	
칠시어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0.2	있음	
한인어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0.1	있음	
고등어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1.0	없음	
높은어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0.7	있음	
독진어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0.9	있음	
노랑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0.8	없음	
숨은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4	없음	중복
지미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1.5	없음	
초단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0.2	없음	
캔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1.1	없음	
밖서비어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1.7	있음	
배암줄이여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1.9	있음	
보리어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0.4	없음	
삼성어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0.3	있음	
상자리여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0.1	있음	
서비어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2.9	없음	
오족부리여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0.3	있음	
자진어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0.1/2.7	있음	
절루찌어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0.6	있음	
조진어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0.3	있음	
진어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0.5	있음	

2) 해저지명

(1) 초

초는 해면이나 해면 가까이에 위치한 바위 또는 경화된 물질로, 항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해저지형이다. 대부분이 단단한 암초나 산호 등으로 되어 있어 항행할 때 위험한 곳으로, 진흙, 모래 등 단단하지 않은 물질로 되어 있는 모래톱(shoal)과 구별된다. 현지조사를 통해 발견된 초는 모두 77개로, 주로 제주도에 많이 분포한다. 다음은 현지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초의 지명이다(표 2-6).

표 2-6 현지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초

지명	행정구역	특성(수심 m)	명칭유래	지명중복여부
돈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	없음	
바세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8	없음	
보석뿌리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6.0	없음	
한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9.8	없음	
관사난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4.6	있음	
넙개우친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2.1	있음	
넙개우친여막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1	있음	
넙개우친중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2.9	있음	
두리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5	있음	
마라홍앞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8	있음	
물앞탄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0.0	있음	
박홍앞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6	있음	
보섭코지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4.1	있음	
살래덕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2.8	있음	
상은이아방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2	있음	
상은이아방이옆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4.2	있음	
서우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2.3	있음	
서우여막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6	있음	
서한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2.6	있음	
선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1	있음	중복
애처리아방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6.9	있음	

오십원짜리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9.0	있음	
옥근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7	없음	
중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5	있음	
홍앞어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5	있음	
골셋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6.1	있음	
머리뿌리앞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9.6	있음	
삼거리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9.2	있음	
큰앞동산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7	있음	
가릿어	서귀포시 서귀동	13.0	없음	
한여골어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7.3	있음	
동새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4.2	없음	
동신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4.7	있음	
벌러진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9	있음	
연두부등골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	있음	
장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9	있음	
금덕이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3	있음	
동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6.0	없음	
소경도숨은어	여수시 경호동	3.0	있음	
치끌어	여수시 남면 화태리	6.8	있음	
윗머리덕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4.4	있음	
진목초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3.6	있음	
계동초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0.9	있음	
두룽초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3.1	없음	
바다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5.0	없음	
노랑어	여수시 묘도동	1.5	없음	
멧돌어	여수시 묘도동	2.7	있음	
마당어	여수시 소라면 여자리	1.0	있음	
오동숨은어	여수시 수정동	5.4	있음	
작은섬어	여수시 신덕동	1.9	없음	
신월어	여수시 신월동	1.2	있음	
셋어	여수시 오천동	6.7	있음	
농어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8.1/24	있음	

소맹이여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8.6	있음	
소들바여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14.0	있음	
바닥여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6.1	있음	중복
암마를동산	제주시 건입동	4.7	있음	
바닥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7.7	없음	
없음두망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8.4	없음	
작은소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9.3	없음	
작은소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2	있음	
큰소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7.7	있음	
가림밭동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0.6	있음	
먼옛동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5.0	없음	
서바깥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9	없음	
셋초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2	있음	
애월코지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2	있음	
너른지여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영일동	3.1	있음	
섬여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영일동	4.9	없음	
가두맥여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0.9	없음	
선여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4.3	없음	중복
거욱난여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4.6	없음	
댕강여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5.0	없음	
동아옛살여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1.4	있음	
몸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4.9	있음	
몸서알끝여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8.7	있음	
산방난여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4.0	없음	

(2) 해저구릉(Hill)

해저구릉은 해저면이 해저산보다 작고 고립된 고지대로, 일반적으로 높이가 500m 이하인 작은 지형으로 정의된다. 연구지역에 있는 해저구릉은 모두 5개로 다음은 해저구릉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그림 2-6). 해저구릉은 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한 해도와 3D 데이터로 분석되었다. 수심측량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해저지형 중 EEZ상에 분포한 해저지형에 대해서는 토착지명과 SCUFN 속성지명을 고려하는 복수의 지명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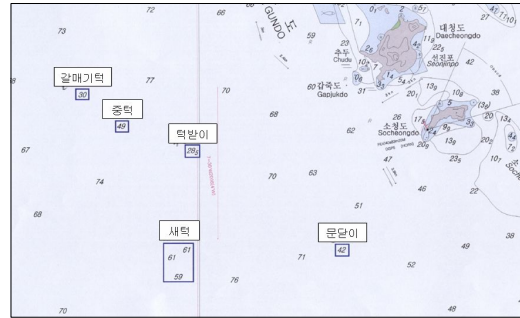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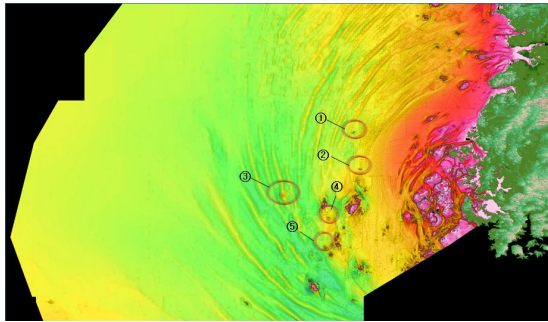


그림 2-6 해저구릉의 위치

(3) ○○사퇴지형구(Province)

지명	1안	한글	○○사퇴지형구
		영문	○○ Sand-Ridges Province
위치 및 범위	대표위치 35°31'N, 125°13'E. 평균수심: 약 30~80m		
지형의 정의 및 분류 근거	지형구란 지형적 특성이 주변지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해저 사퇴(sand ridges)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지형적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전형적인 지형구라 할 수 있다.		
그림			

(4) 해저계곡(Sea Valley)

지명	1안	한글	제주 해저계곡
		영문	Jeju Sea Valley (Jeju Submarine Valley)
위치 및 범위	대표위치 : 33°38'N, 126°57'E. 길이 : 약 185 km 너비 : 약 20 km 깊이 : 약 30 ~ 55 m 제주도 북쪽(126°06'E, 33°50')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제주도 남동부 사면(126°40' 33°01')까지 확장된다.		
지형의 정의 및 분류 근거	해저계곡은 일반적으로 대륙붕이나 대륙사면에 위치하는 해저의 골짜기로서 완만하게 경사지고, 비교적 넓고 얕게 파인 계곡을 말한다. 제주 해저계곡은 폭이 약 20 km, 깊이가 약 30 ~ 55 m로 깊이에 비해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형으로 해저협곡보다는 '해저계곡의 정의'에 부합된다. ※ 지형적 특성에 따라 해저계곡으로 분류하였으나 탄성과 탐사 등의 자료를 통해 보다 확실한 분석이 요구됨.		
지명 선정 근거	제주도와 인접하여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라는 이름을 차용.		
그림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해양지명 조사를 위하여 4차에 걸쳐 남해 중부(연안), 제주도 일대를 현지조사 하였고, 황해 및 제주도 부근의 해저지형은 3D 이미지와 해도를 통해 지형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해상지명은 수로 12개, 만 42개, 암 153개로 총 207개가 조사되었으며, 해저지명은 초 77개, 해저구릉 5개, 사퇴지형구 1개, 해저계곡 1개로 총 84개가 조사되었다.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개정은 국제적인 기구(SCUFN·ACUF)에서 정의한 고유지명과 속성지명의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SCUFN과 ACUF의 해양지명 용어를 통해 새로 추가될 수 있는 속성지명 31개를 발굴하였고, 그 중에 새로운 속성지명 18개에 관한 한글화 검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편람 상의 15개 속성지명에 대하여 한글화 재검토를 하고 만, 수도, 암, 초 등의 한글화·영문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형태적 설명 이외에 성인적 설명이 추가될 필요성은 형태적 특성으로 구분하기 힘든 속성지명의 예를 통해 설명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속성지명의 시각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표준화 편람(안)에 42개의 새로운 이미지를 첨가하였다.

우리바다 국가표준지명 관리방안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해양지명을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양지명정보 관리시스템, DB구축 및 검색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해양지명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며 공간적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우리바다 지명사전 내용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누고, 사용자가 고시지명, 표기지명, 고시날짜, 행정구역, 지명종류별로 해양지명을 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우리바다 지명사전을 구축하였다.

해저지명의 국제기구(SCUFN) 등록과 관련한 제20차 SCUFN 회의의 AGENDA 내용 검토와 SCUFN 등재를 위한 한국 제안서 및 SCUF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저지명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저지명의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해양지명 조사영역 확대, 해양지명 조사 지원 및 국제등록 추진을 위한 기반 확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국제 표준 선도, Outreach Service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Outreach Service 중에 해양지형과 지명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교재 개발, 관련 각종 워크샵, 온라인 교재 개발, 해저지형 교육 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이 향후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해양지명을 홍보하고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해양지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

동·남·황해 경계 획정 시 고려되는 요소에는 해안선의 구조, 도서의 지위, 저고조지/항구시설/등대, 지질 및 지형적 요소, 당사국 육지 면적의 크기, 국가 행위, 제3국의 존재와 Tri-junction 문제, 안보적 요인, 역사적 요인 등이 있으며, 국제 판례에서는 7건 중 5건이 국가간 해양경계획정 방법 중 등거리선을 전부 혹은 일부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안을 존중할지 또는 국내용으로만 통용할지에 따라 가능한 동·남·황해 해양경계획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표준화 편람 개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Outreach Service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현재 표준화 편람 상에 나오는 해양속성지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미지를 포함한 책을 국문과 영문판으로 출판하여 해양교육 자료로 활용하거나, 해양지명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SCUFN Gazetteer에 등록된 해저지형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해양지리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표 · 홍성걸 · 이형기, 2000,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
용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영구, 2004,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 북스.
- 김현수, 2000,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해사법연구, 12(1), 한국해사법학회, 69-92
- 박찬호, 2007, 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소고 -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48(1), 347-374
- 장학봉, 2002, 해상경계분쟁 실태 및 주요쟁점,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해
양환경안전학회, 15-24
- 최낙정, 2002,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세창출판사.
- 최종화, 2004, 현대 국제해양법(제4전정판), 도서출판 두남.
- 해양법포럼(사), 2006,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종합 V, 해양수산부
- 해양지명위원회, 2004,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 해양지명위원회, 2005, 우리바다 우리지명.
- 해양지명위원회, 2006, 우리바다 우리지명.
- Ardrey, R., 1967, *The Territorial Imperative: A Personal Inquiry into the Animal
Origins of Property and Nations*, London: Collins.
- Cox, K., 1991, The abstract, the concrete and argument in the new urban politics,
Journal of Urban Affairs 13: 299-306.
- Cox, K., 2002, *Political Geography: Territory, State, and Society*, Blackwell, Oxford.
- Cox, K. and Mair, A., 1988, Locality and community in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nals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8:
137-146.
- Garrison, T., 2004, 해양의 이해(제3판).
- Glassner, M. I. and Fahrner, C. 2004. *Political Geography*. Hoboken, NJ: Wiley.
- Gross, M. G., 1995, Principles of Oceanography (the 7th ed.).
- Hans Werner Schenke (2007), Undersea feature nomenclature and terminology: In
the past and today, 제 2회 해양지구물리 자료의 적용과 해저지명에 관한 국제심포
지엄의 발표자료, 2-9.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 Harvey, D., 1985, The geopolitics of capitalism, in Gregory, D. and Urry, J.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London.
- Harvey, D., 1989. *The Urban Experience*. Blackwell, Oxford.

- 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2001, 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 Bathymetrical Publication No. 6(B-6).
- Karnaukh, V.N. and B.Y. Karp, I.B. Tsoy, 2005, Seismic Stratigraphy of the Sedimentary Cover and Sedimentation on the Pervenets Rise and in the Adjacent Areas (the Japan Sea), *Oceanology*, 45(1), p.118-129.
- Kristoffersen, Y. and M. Y. Sorokin, Jokat, W., Svendsen, O., 2004, A submarine fan in the Amundsen Basin, Arctic Ocean, *Marine Geology*, p. 317-324.
-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2006, Undersea Feature Names in the Republic of Korea.
- Schenke, H.W., 2007, Undersea feature nomenclature and terminology: In the past and today, 제 2회 해양지구물리 자료의 적용과 해저지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의 발표자료, 2-9.
- Smith, N., 1993, Homeless/global: Scaling places. In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eds. J. Bird, B. Curtis, T. Putnam, G. Robertson, and L. Tickner, 87-119. London: Routledge.
- Stagpoole, V. and R. Falconer, 2007, Mapping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New Zealand region, 제 2회 해양지구물리 자료의 적용과 해저지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의 발표자료, 144-146.
- Storey, D., 2001, *Territory: the Claiming of Space*. London: Prentice Hall.
- Sung, H. H., 2007, 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 and Outreach Plan in Korea, 제 2회 해양지구물리 자료의 적용과 해저지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의 발표자료, 64-79.
- Sverdrup, K. A., and A. C. Duxbury, A. B. Duxbury, 2005, An Introduction to The World's Oceans Figure (the 8th ed.).
- Trujillo, A. P. and H. V. Thurman, 2007, Essentials of Oceanography (the 9th ed.).
- USBGN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1999, Policies and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

GEBCO (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s)

<http://www.ngdc.noaa.gov/mgg/gebco/>

GEBCO Digital Atlas

<http://www.ngdc.noaa.gov/mgg/gebco/gazetteer/access.html>

주 의 사 항

1. 본 보고서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수탁을 받아 대한지리학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본 내용을 대외적으로 게재,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사전 허락을 받기 바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해양지명 조사

<동해 남부, 남해 동부 및 제주도 남부해역>

발간등록번호 ·

발행일 · 2007년 12월 일

발행처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17번지(400-800)
TEL · 032-885-3825
FAX · 032-885-3088
